

「십자가를 내려주세요」

기인명 시몬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나도 사별가족이다. 지금부터 13년전 막내아들이 열여덟살인 고등학교 2학년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녀석은 중학교 3학년 때 부터 봉사를 하겠다고 수화를 배우고 있었다. 아들을 저 세상에 보낸 후 2년여 간 나는 인생의 극심한 황폐기를 보냈다. 그 후 나는 막내의 숨은 뜻을 기리며 이어가기 위해 1년 동안 호스피스 공부를 했다. 그리고 7년 전 부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자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발마사지를 해주고, 기도(주모경, 자비의 기도, 임종경)해 주고, 머리감기고, 가끔 보호자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는 것이 봉사의 전부인줄 알았다. 그러다 5년 전부터 사별가족 지지팀으로 중복 봉사를 하면서 나는 새롭고 중요한 사실을 터득했다.

〈인간은 누구나 가슴에 상처가 있고 한이 있다. 자신만의 그 십자가는 무겁고 덜 무거운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워져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처를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기간, 형제자매기간, 부자기간, 가까운 친척, 친한 친구 때로는 성당의 교우나 수도자 일 수도 있다. 그 십자가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이혼의 상처, 이혼 때문에 수 십년간 만나보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 재산문제로 등 돌리고 사는 부모나 형제들 간의 치졸함, 아픈 상처를 안겨주고 가버린 친구나 교우들의 배신 등이 환자의 가슴에 십자가로 굳어진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한을 풀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는 수녀님들과 가족들의 협조를 받아 환자 본인만이 알고 있는 굳어진 상처와 한을 찾아내어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힘든 십자가를 내려놓은 호스피스 환자가

행복하고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 하는 모습을 볼 때 봉사자들은 사랑스런 보람을 느낀다. 그럴 때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진정 밝은 빛을 볼 것이다.〉

끝으로 저의 시집 “진강산의 눈”(2010년 위즈앤비즈)에 실린 줄시 한편을 읊어본다.

임종방

호스피스 병동 임종방
젊은 아내와 강아지 같은
어린 남매를 두고
단 한마디 못하는 아빠
몇 모금 안담은 숨을
아주 힘껏
빨아들이고 있다.

복수로 부푼 배위에
두손을 얹고 기도하면
힘겹게 숨을 뱉으면서도
어제까지 그는 행복해했다.

거칠고 마른 두 손을 꼭 잡으면
입술만 들썩이는 인사로
흐르지 않는 눈물로
어린애 같은 웃음으로
소통이 안되는 손짓으로
그는 늘 내 가슴에
뜨겁게 안기였다.



새벽녘
빛 잃은 보름달이
그의 얼굴위에 조용히
내려앉을 때
가늘게 실눈이라도 한번
떴으면 좋으련만...